[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의 질서를 정립하시면서 인간을 통해 문화를 발전시키며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빚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건드렸듯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기에 세상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

아담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 등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응을 옳지 않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일상적인 부분에서 넘어지게 되는 부분이지만 구조와 방향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법으로 불변적 존재인 구조를 만드시고 인간인 우리는 그 구조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존재로써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옳다 옳지 않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법일 것이며 인간이 그른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 이 세상의 진리를 변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타락한 존재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구속**

회복(restoration)의 의미를 갖는 구속은 단순히 창조를 넘어선 어떤 것의 첨가가 아닌 손상되지 않은 창조계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계의 삶에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차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구속(redemption)은 죄인을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그에게 자유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나의 옛 육신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것입니다.

**완성**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말합니다. 시간적 새로움의 ‘네오스’가 아닌 완전한 질적 변화를 가리키는 ‘카이노스’를 사용하며 이 완성된 세계에는 새 땅과 새 하늘은 있지만 바다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죄의 가능성이 없고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생명연장